

# 민심은 호남의 자부심·리더십 갖춘 인물 원한다



박주선 의원

올해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2012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물갈이'가 최대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좀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전남 정치권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도전과 응전'에 나서는 정치적 리더를 배출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이 '광주 정신'을 토대로 시대적 화두를 끌어안고 DJ 이후의 동력을 키워가기 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반목, 눈치보기 행태 등이 겹치면서 점차 '정치적 불모지'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차기 대선은 물론 차차기 대선 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광주·전남 정치권의 참담한 현실이다.

또한, 정권을 잃은 18대 국회 들어서도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서 존재감을 상실하면서 차기 대선 등을 앞두고 점차 정치적 상수보다는 종속 변수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민심의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물갈이 대상과 규모, 변수 등에 대해 조명해보자.

◇위기의 중진 의원=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주요 물갈이 대상으로는 3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2년 이상 국회의원을 하고도 정치적 비전 및 리더십을 검증 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박상천(5선), 김영진(5선), 김성곤(3선), 유선호(3선), 김효석(3선), 이낙연 의원(3선) 등 6명이 3선 이상이다.

이들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냉혹하다. 3선 이상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전문성과 경륜을 확보했지만 정치적 리더십 구축에 실패,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광주·전남지역 중

## ■ 광주·전남 내년 총선 물갈이 얼마나 될까

진 의원들은 여소야대의 위기 상황에서 정국 타개를 위한 당내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종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중진 의원들은 19대 국회 진입 이후, 광역단체장 도전 의사를 보이는가 하면 국회의장 및 부의장 거론하는 등 정권 창출이나 정국 타개를 위한 역할보다는 지극히 개인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물갈이' 여론을 되레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 중진 의원들은 정치적 리더십은 약하지만 전문성과 성실성 면에서 상당한 점수를 받고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치적 비전을 갖춘 인사를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유권자의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박상천(1938년 출생), 박지원(1942년 ), 최인기(1944년 ) 의원 등이 19대 국회에 진입한다면 70대에 접어든다.

문제는 정치적 비전이다. 정치적 비전을 확보한다면 나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만 과거 경륜과 현재의 기득권에만 의존한다면 다시 기회가 찾아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종 약재 물갈이로 이어지나=18대 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종 약재에 휘말렸

법 자금을 수수한 것과 관련,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정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과거 민주당 시절 특별당비 문제로 재판에 연루된데다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갑원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선 의원들도 각종 약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김재균 의원은 부인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파문과 자신의 부동산을 광주시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조영택 의원은 두 번에 걸친 서구정당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며 이용섭 의원은 광주시장 후보 경선 패배의 후유증 극복이 관건이다.

이용섭 의원은 지역구인 서삼석 무안군수와의 갈등이 진화되지 않고 있으며 김영록 의원은 뚜렷한 약재는 없지만 지역구 장악 등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물갈이 규모와 변수=과거 총선에서도 평균 30~40%의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19대 총선에서는 절반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사상 최대의 '물갈이 쓰나미'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과거 같지 않는데다 민주당이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공천 과정에서 과감한 기득권 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개혁특위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 방안을 놓고 다양하고 파격적인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이 과감한 기득권 포기보다는 계파별 지분 나눠먹기 방식으로 공천을 진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 무소속 돌풍 등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19대 총선에서의 물갈이 폭은 사상 최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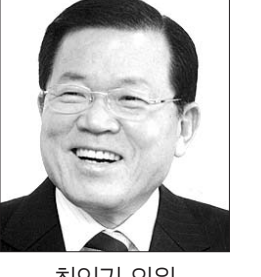
김성곤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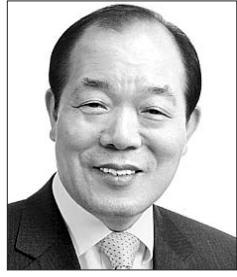
주승용 의원



서갑원 의원



최인기 의원



조영택 의원



김영진 의원



장병완 의원



강기정 의원

## 3선 이상 중진 최소한 절반 이상 교체 가능성 관료 출신·약재 휘말린 의원도 자유롭지 못해 민주 기득권 포기엔 '물갈이 쓰나미' 올 수도

있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료 출신과 나이= 관료 출신 국회의원들도 '물갈이 바람'에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인기(행정자치부 장관), 조영택(국무조정실장), 이용섭(건설교통부 장관), 장병완(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록(전남도 부지사) 의원 등이 관료 출신이다.

관료 출신 국회의원들은 상당한 전문성과 성실성은 확보했지만 과감한 정치적 도전이나 문제 제기보다는 공무원 특유의 '좌고우면', '졸서기' 등 눈치보기식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자리가 퇴임한 고위 관료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며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비례대표'로 영입

다는 점에서 물갈이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우선, 3선의 유선호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잣-오프 탈락의 수모를 겪은데 이어 청목회(전국 청원 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정 의원은 정세균 대표 시절 주류 측의 '행동 대장'이라는 논총을 받은 데다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낙마, 정치적 내상을 입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청목회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까지 받았다.

우윤근 의원도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당내외 활동에서 정치적 중립감이 떨어진다 지적을 받고 있으며 청목회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체면을 구겼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 룰 문제에 집착하다가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측근이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불



김재균 의원



김동철 의원



이용섭 의원



이낙연 의원



이운석 의원



김영록 의원



유선호 의원



박상천 의원



김효석 의원



우윤근 의원

자연분만 전국 1위 분만건수 한국 3위  
보건복지 가족복지정신부인과 전문병원 선정



##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표원장 허 정의 임직원일동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22-12번지  
대표전화 TEL. 062-260-3000